

항일운동 독립운동가 헌신·희생 기억

전주 작가 7인 오디오북 첫 출간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남겨진 기록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사진전 개최

전주문화재단, 순수 문학작품 선정 제작·정산 원스톱 지원 전국 최초 미디어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디지털 독서 시장 개척·본격 유통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 '남겨진 기록' 사진전을 개최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오는 3월 31일까지 1980년대 치안본부에서 발견된 4,800여 장의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의 시대적 배경과 인물카드 속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남겨진 기록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919년 3·1만세운동을 기점으로 일제가 항일운동에 대응하고자 규정한 일명 '사상범'인 독립운동가의 기록을 담고 있다.

우리가 교과서로 접했던 독립운동가 유관순, 안창호, 한용운, 이봉창, 윤봉길 등의 빛 바랜 사진은 대부분 체포 혹은 수감 직후에 경찰서나 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신상정보와 함께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로 남겨져 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일제가 기록한 독립운동가의 흔적'은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의 작성 배경과 양식을 살펴보고, 2부 '3·1만세운동에 참여한 수감자'는 수형기록카드를 본 3·1만세운동의 특징과 주요 인물카드를 소개한다. 3부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속 군산'은 군산·육구 출신 및 주소로 기재된 수감자 인물카드를 전시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3·1만세운동 이후 일제가 항일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를 철저히 발본색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한 수형기록카드를 살펴보고자 기획되었으며 비록 일제가 감시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후대에게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숭고하게 투쟁한 독립운동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오는 3월 31일까지 1980년대 치안본부에서 발견된 4,800여 장의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의 시대적 배경과 인물카드 속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남겨진 기록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가의 귀중한 기록 문화유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수형기록카드를 통해 항일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8년에 개관했다.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3·1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영명 학교와 예수병원, 구암교회 등이 주축이 되어 만세운동을 일으킨 상징성과 군산 독립 만세운동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는 호국보훈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군산=남현봉기자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디지털 독서 시장 개척과 지역 작가와 작품을 알리기 위해 우리 지역 작가 7인의 문학작품을 오디오북으로 제작, 오디오북플랫폼을 통해 본격적인 유통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팬데믹 시대 문학작품과 미디어를 융합해 새로운 독서문화를 선도하고자 재단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미디어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으로, 점점 커지는 디지털 독서 시장 진입 기회 창출을 꾀하는 디지털 독서 시장 개척 사업이다.

지역 작가의 오디오북 제작에서부터 유통, 마케팅, 정산까지 멈춤 없는 원스톱 지원이 이뤄지며, 특히 오디오북 판매수익을 유통사가 작가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재단은 지난해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시, 소설, 동화, 희곡 등 총 7종의 미발간작을 오디오북 전문 제작사와의 협력을 통해 오디오북으로 제작, 2022년 1월 현재 국내 최대 규모 오디오북플랫폼인 '네이버 오디오클럽'과 오디오북 전문 플랫폼 '오디언'에서 판매하고 있다.

김정경 문예진흥팀장은 "그동안 타지역 재단에서 특정 주제의 스토리텔링이나 홍보 목적으로 오디오북을 제작한 사례는 간혹 있었지만, 순수 문학작품을 선정해 제작에서부터 유통,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건 전국에서 최초"라며, "전주 작가 오디오북이 전국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기자

'익산의 추억, 기록으로 기억되다' 전시회

2월 13일까지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1층 전시실서 제1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 개최

익산시가 제1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를 개최한다. 시는 21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1층 전시실에서 제1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 '익산의 추억, 기록으로 기억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개최한 제1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의 문서, 일기, 사진 등의 수상과 기증 기록물, 일제강점기 근대역사관 소장 익산 관련 대외기록물 등 770여점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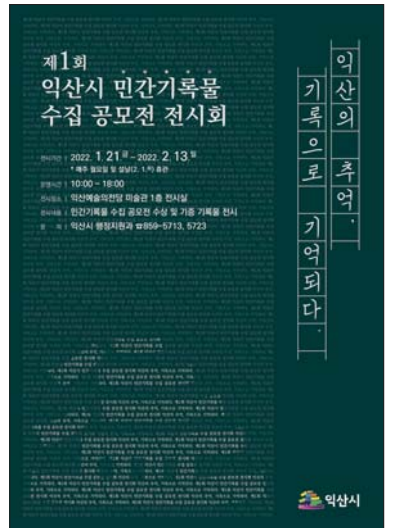
특히 △광복군이 사용했던 포대와 이름표 △1900년대 이리농림학교 졸업기념사진첩, 임업실습일지 등의 학교 기록 △춘추포면 도정공장 운영 당시 사용했던 곡물검사기준품, 쌀포대, 쌀 등급을 표시했던 고무인 등의 미곡 관련 기록 △1979년부터 2020년대까지 쓴 일기 △삼산김병기 선생(독립운동가) 자녀 김산기 박사 인터뷰 영상자료 △모현주공아파트 재건축 기록 영상 △1940년대 익산군 관내 지도 등 다양한 기록물이 전시되어 눈길을 끈다.

또한 특별전시로 일제강점기 근대역사관 소장 익산 관련 기록물인 휴대용 접이식 지도, 도자기, 각종 익산 관련 엽서 등도 함께 전시한다.

익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관람이 가능하며 전시회 도록은 시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볼 수 있다.

전시회 도록 전자책은 관내 학교·유관기관·도서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익산기록자산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익산시가 제1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 3월부터 제2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시민들의 역사가 곧 익산의 역사이기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해 익산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익산에 살면서 몰랐던 익산의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기자

무주 태권도원 온라인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

태권도진흥재단·세계태권도연맹, 분기별 총 3회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이 주관하고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종원)이 주최하는 '무주 태권도원 온라인 2022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이하 온라인 품새 오픈 챌린지)' 대회가 '챌린지 I'(3월), '챌린지 II'(7월), '챌린지 파이널'(10월)로 구분하여 올해 총 세 차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챌린지 I'는 G2 등급의 대회로서, 3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시니어 국가대표 부문과 개인전 및 복식·단체전의 오픈 부문으로 개최되고, '챌린지 II'는 7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 카트과 주니어 국가대표 부문, 그리고 개인전 및 복식·단체전의 오픈 부문으로 개최된다.

마지막으로, G6 등급의 '챌린지 파이널'은



앞서 열린 '챌린지 I, II'의 등급별 결선에 진출한 상위 8명에게 출전권을 부여해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생방송으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의 참가 자격으로는 국가대표

부문은 국가원 또는 세계태권도연맹이 발행한 공인단체 소속자로서, 각 대륙 및 국가 협회 추천 1명만 출전할 수 있으며, 오픈 부문 개인전은 공인단체 소속자, 복식전(2명) 및 단체전(3명)은 1팀당 최소 1명이 4급 이상을 보유하여야 출전할 수 있다.

이번 대회의 총 상금은 약 1억 6천만원이며, 온라인 품새 챌린지 파이널 국가대표 부문의 시니어 입상자(1위~8위)에게는 세계태권도연맹 승인 랭킹포인트를 부여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이번 챌린지는 기존 온라인 품새 대회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접수와 참가비 결제, 영상 촬영 및 업로드 등을 일원화 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태권도 진흥과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